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완공을 앞둔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완공을 앞둔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당중앙의 사상과 뜻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위훈의 창조자들이 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 순결한 애국정신을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높은 정치열의와 로력적헌신에 의하여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놀라운 건설기적이 창조됨으로써 수도 평양은 주체사상과 주체문화, 우리식 문명의 중심지로, 인민의 리상이 꽃피어나는 위대한 도시로 그 면모가 더욱 훌륭히 전변되게 되였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수도건설 5개년계획의 첫째인 2021년도 계획에 따라 송신, 송화지구에는 56정보의 영역에 현대적이며 특색있는 80층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하여 1만세대의 다양한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보건, 교육, 편의봉사시설들이 편리하게 배치되고 여러 휴식공원, 고가다리, 장식구조물들이 주민지구와 예술적조화를 이루며 특색 있게 건설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거리의 전경이 정말 불만하다고,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정확히 집행되었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대회가 제시



인민의 도시로 꾸리는것이 중핵이라고 하시면서 각급 설계기관들에서는 현대발전 추세의 요구에 맞게 자연 지리적조건과 수도시민들의 편의성을 첫자리에 두고 거리 및 구획형성과 도로 설계를 잘하며 다양성이 보장된 여러 건축물들의 예술적결합을 증시하고 특히 모든 요소들의 현대성을 최대로 부각시키는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또한 건축물들의 직관적 장식효과를 정치, 사상, 문화적감정에 맞게 잘 살리며 인민성과 현대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교육, 보건, 체육, 문화후생시설들과 상업, 금양봉사기지를 잘 배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부문에서는 도시의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심을 두고 도시룩화를 비롯한 문화적인 환경조성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전체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활화적

한 수도건설 5개년계획의 첫째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통하여 우리의 건축이 또한 한계단 발전의 로정을 걸었다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는 변혁적인 실체를 창조해내는 대규모건설실천투쟁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묘리들을 적극 일반화하여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면서 국가적으로 건설력량을 지속적으로 장성시키며 건설속도를 가속화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대적인 1만세대의 살림집을 짧은 기간내에 우리의 힘으로 훌륭히 일떠세운것은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의 정당성과 주체적자립경제의 잠재력,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건설한 살림집들의 설계와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다고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며 수도건설의 새로운 발전전기를 마련하고 우리 수도의 발전상을 온 세상에 시위하는데 이바지한 전체 건설자들에게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머지않아 인민들이 자기 손으로 준공테프를 끊고

보금자리에 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고, 자신의 소망이 또 한가지 풀리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태양절까지 인민들이 새집들이를 할수 있게 완벽하게 마무리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수도를 사회주의강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웅장화되게 꾸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도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뚜렷한 자기 특징이 살아나는 나라의 심장부,

기세는 하늘끝에 닿았으며 새로운 평양 속도, 건설신화의 위대한 창조자, 선구자가 될 의지로 격양되어있었다.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는 불변의 신념을 피륙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한 전체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사회주의문명창조의 새로운 투쟁, 새로운 승리로 부르는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우리 수도의 번영을 위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을 위하여 한몸 다 바쳐갈 드높은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기자



저레의 통일속망을 물어주시려고 (1)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많은 것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허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저레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고 조국통일위업 수행의 길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고결한 한평생이다.

나라의 분별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은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까지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신 민족의 아버지, 통일의 태양.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튼튼한 밑천이다.

본사편집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10돌을 맞으며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바치신 불멸불후의 로고와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을 다시금 돌이켜본다.

*** * ***

조국통일!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위업이었으며 절절한 념원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분별된 민족의 아픔을 두고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안군 군당청사 뜰앞에 있는 자그마한 연못가에서 군내의 여러 가족들과 담화를 나누신적이 있었다. 이날 한 녀성으로부터 전쟁중에 서울에 사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가 해산하려고 친정에 왔지만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서울로 가는 길이 막혀 놓려앉아 살게 되었다는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의 마음은 몹시도 아프시었다.

민족분별로 하여 겨레가 겪는 불행과 고통이 얼마나 가슴아프시었으면 아버지수령님께서 한참동안이나 아무 말씀도 없이 못가의 넓은잎정향나무꽃 한송이를 꺾어드리고 꽃잎을 한잎한잎 못의 수면 위에 떨어지시었으랴.

아버이수령님은 이처럼 겨레가 당하는 분별의 고통을 제일 가슴아파하신분이시었다.

나라가 통일되면 10년은 더 젊어질것같다고, 후대들에게 반드시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고 절절히 교시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음성이 오늘날도 겨레의 귀전에 쟁쟁히 울려온다.

돌이켜보면 일찌기 14살 어린 나이에 조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너신 수령님께서 항일전의 그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여



나날 백두대령의 등진불을 추격 드시고 비쳐보신 조국의 지도는 백두산에서 한산에 이르는 삼천리조국강산이었지 두동강이 난 조국이 아니었다.

아버이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만이 있었다. 하기에 아버지수령님께서 나날이 분별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불멸불후의 로고와 심혈을 강그리 바치시었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청년대표회의를 개최하시어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시며 자신분도 수령님이시었고 격렬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북남사이에 공동성명과 합의서들을 채택하게 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나 《두개 조선》이나 하는 두

하나의 조선로선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조국통일의 기치로 되었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하면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적대회가 마련될수 있는것도, 한때 길을 잘못들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통일애국의 길에 들어설수 있는것도 하나의 조선로선을 추켜드리고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국통일의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3대원칙도,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통일국가의 전모와 실현방도를 밝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도 하나의 조선로선에 따른 통일의 대강, 헌법이었다.

지금도 우리 겨레가 뜨겁게 새겨보는 아버지수령님의 통일친필인 《김 일 성 1994. 7. 7.》. 아버지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남기신 이 아홉

글자의 친필에는 시종일관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이 그대로 어려있다.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지난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외하면 해방된 조국땅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전 생애를 바쳐오신 로고의 력사였다고 말할수 있다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시대에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진정 아버지수령님은 우리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밝혀주시고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 조국통일의 구성이시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많이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물려주고 통일되고 부강번영할 민족의 밝은 레일을 확신하며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 유훈을 받들어 겨레의 통일투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전체 조선민족이 한강토에서 부락을 누릴 조국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미림의 행복과 꿈의 나라

평양시교외에 있는 미림승마구락부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문화생활의 공간으로 되고있다.

지난 설명절과 3.8국제부녀절에도 이곳에서는 온 나라 인민의 관심속에 승마경기가 펼쳐졌다.

나 어린 소년들로부터 대학생,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로동자, 농민, 사무원을 비롯하여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하여 승부를 겨룬 승마경기는 민족의 승리와 기쁨, 민족적정서와 화합을 가슴깊이 실감케 한 인상적인 경기였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말타기를 즐기며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우고 체력을 단련해왔다.

고조선사람들은 구리로 말자갈을 만들어 말을 부리었고 치레거리도 만들어 말을 장식하였다고 한다.

특히 고구려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을 탈 줄 알았으며 인재를 뽑을 때도 말 탈 줄 알고 활을 쏠 줄 아는가 하나의 평가기준이 되었다.

《늙은 말이 길을 안다》,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르면 사람의 마음을 안다》, 《저는 말도 바른 길로 간다》와 같은 성구나 속담에는 말타기를 로동과 군사에 필요한 생활상요구로 여기고 살아온 우리 민족의 승마풍습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민족의 전통풍습인 승마운동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미림땅에 승마구락부를 세울것을 받기하시고 건설을 세심히 지도하시었다.

주제101(2012)년 11월 어느날 미림지구에 있는 인민군대의 기마훈련장에 나오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승마경기의 위치가 참 좋다고, 승마운동을 하기에는 그저그만이라고 하시며 기마훈련장을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체력단련

을 위한 승마구락부로 전변시키게 대하여 제의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새로 개건하게 되는 승마장이 미림지구에 있는것만큼 명칭을 미림승마구락부로 하자고 하시면서 승마구락부를 하루빨리 현대적으로 개건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자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은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다.

그 어느 나라의 군력사를 더듬어보아도 전투임무수행이나 군사전략상필요로 하여 인의 지역이나 대상이 군사기지로 넘어간 실례는 허다하지만 반대로 군사훈련기지를 인민의 복리를 위해 내주었다는 기록은 없었던것이다. 참으로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세상을 좋은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다 안겨주고싶어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결심이었다.

경에하는 그의 발기와 깊은 관심속에 미림승마구락부는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7개월 남짓한 기간에 일매지게 떨어진 승마구로들과 승마봉사를 위한 여러가지 시설을 갖춘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대중승마봉사기지로 훌륭히 건설되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에 승마구락부들이 있지만 운영자금에 적지 않게 들기때문에 대체로 경마나 마술3종에 참가하는 말타기나 기수양성에 리용되고 부유층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유흥장의 하나로 되고있다.

근로자들이 누구나 승마운동을 즐기며 신체를 단련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대중승마봉사기지로 되고있다.

미림땅에 울리는 행복의 말발굽소리는 사회주의문명을 한껏 누리려는 인민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주제81(1992)년 2월 16일이었다.

새날을 알리는 인민대학습당의 은은한 종소리가 울린다고 퍼그나 지났을 때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영화제작소에서 만들어낸 《조선화면노래 반주곡》(제1집)을 보자주시었다.

민족적향취가 그대로 어려있는 흥에 겨운 민요가락, 배우들의 세련된 형상과 풍치수려한 조국의 명승지들이 배경으로 흘러가는 기쁜진화면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매 장면 하나하나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며 총련 문화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그것을 통해 광범한 제일동포들을 교양할 심혈한 사색의 세계를 펼쳐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축하

단체제도 관람하시었다.

여러 행사가 끝난 다음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본 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을 만나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축하

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시었다. 그리고 총련에서 내외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애국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데 대하여 높이 평가 하시었다.

화제작소 부부장이 이번엔 조국에 와서 오늘 진행한 집단체조행사를 촬영하였다고 하는데 그 동무에게 나의 강사를 전달하여주고 로력강사를 수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화면노래반주곡을 만드는데 같이 동원되었던 총련일군들도 국가표창을 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랜 시간 제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될 강령적과르치심을 주시었다.

본사기자

총련에서 만든 화면노래 반주곡을 보아주시며

사랑의 자욱우에 꽃피는 일화 (2)

시초

사랑이 넘쳐나는 총총마을
만물이 넘쳐나는 마을에 경사났네
원수님 다녀가신 뜻있는 집에서
아이의 돌생일을 맞았대네

그냥 지나칠수는 없지
화판에 아이의 모습 담고져 하는데
참 얼마나 빠르한지
어른들도 만져보며 혼들어보며
깔깔 웃어대는 아이
도무지 그림에 옮길수 있나

축복

아버지와 어머니 네가 받아안았단다
원수님의 축복을 받아안은 행복동이
얼마나 밝은가 너의 앞날은
얼마나 좋으랴 네가 걸어갈 앞길은
아, 원수님 그 축복 햇빛처럼 넘치는
돌생일집에 웃음도 가득

해빛속에 피어나는 꽃송이런가
아이는 꽃처럼 웃고
어른들도 행복의 눈곱을 찍는
이 화폭 어찌 어디선들 찾을수 있으랴
빛을 달리는 미술가의 눈곱도 뜨거
워라

화가 김 영 일

은은한 달빛속의 별천지 포태망
미술가는 아름다운 전경 화폭에
담네

정말 멋있구나
포태산 뒤에 두고 일떠선 살림집들
보면 불수목 장관이로구나
달빛이 내려앉아 금빛에 물든 모습

정말 멋있구나
대보름달 비치는 포태동모습
그 모습 담겨진 화판의 그림
둥둥실 달도 그림을 보며 못떠나
는가

정월대보름달 바라보는 하나의 생각
감자풍년 이루고 원수님 모시고
싶은
오직 이 하나 간절한 마음
그 마음 알아서인가 유난히도
밝은 달

이 마음 이 소원 안고
누구나 바라보고 바라보는 대보
름달
낮에도 밤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나 원수님 모시고싶은 포태의
소원

**연필을 쥐면 박사가 되고
프락토르놀이기구 가지면 운전사 될거야
저저마다 가슴조이며 흥성이는
생일집
사람들 축복 알아듣기는 하는지
제법 꾸벅 절도 한다네**

포태동의 대보름달

백두산기슭의 포태망
하늘에 두둥실 정월대보름달 뜨네

**한낮에 봐도 아름다운 땅
한밤의 달빛에도 아름다운 땅
포태망에 오셨던 우리 원수님
이 땅에 또다시 모시었으면
전해다오**

하나 아는가 철없는 아이야
은 동네의 생일축복에 앞서
너의 앞날 축복해주신 아버지 계시는줄
너의 볼 다정히 다독여주신
아버지의 그 따뜻한 손길 알고
있느냐

길가에 서서 집주인들 데려오라고
내가 문득 문을 두드리면
실례된다 하시던 다심한 그 사랑
집주인을 왔다고 환한 미소 지으
시며
들어서신 집이 바로 너의 집이란다

아이도 건강하게 잘 키우고
감자농사도 잘 짓고
행복하게 살기 바라다고 하시던
원수님
그날의 그 축복을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

내외 반통일 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아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열망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모든 사회계층과 마찬가지로 조국통일운동도 주체의 준비정도와 역할에 따라 그 진도가 좌우되게 된다. 민족분열의 비극의 역사를 하루 빨리 끝장내자면 우리 민족의 구성원들 모두가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아가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북과 남이 따로 없고 당파와 소속, 계급과 계층에 구애될수 없다. 진심으로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어넘어 단합하여 자주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이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자주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다.

조국애와 민족애는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며 모든 민족성원들의 공동된 사상감정이다. 민족 그 자체는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사람들의 공동한 집단이며 사회생활단위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있는 단일민족으로서 예로부터 용감하고 재능있는 민족으로 이름 떨쳐왔으며 자기 나라

와 민족에 대한 사랑도 남달리 강렬하였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민족성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열

어려한 우리 민족의 애국애국의 정신과 고유한 민족적기질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든든한 사상정신적 기초로 된다.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제43차대회 진행



안전을 지키는데 중심을 두고 《우리 학생찾기운동》, 3대에국과업수행 등을 즐기 그 기간에 거둔 성과와 교 혼을 구체적으로 분석총화하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류학동) 제43차대회가 얼마전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리홍운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총련 제25차전체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재일본조선류학생운동을 정상개도에 올려세우며 류학동조직의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제43기사업의 과업과 대책문제들이 토의되었다.

리홍운위원장의 사업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는 제42기기간에 류학동이 동포대학생들의 생명



민족대단결의 사상적기초 - 조국애와 민족애

철저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고유한 민족적기질로 되어있다.

참다운 조국애와 민족애가 없는 사람은 자기 나라와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투쟁할수 없다. 더우기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렬로 우리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최대의 민족적요구로 나서고있으며 조국통일의 기치는 민족공동의 투쟁의 기치, 전민족대단결의 기치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격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디에서 살건 모두다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민족의



온 겨레를 통일성업으로 부르는 노래 - 《조선은 하나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들로 갈라진지도 어느덧 7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나날 공화국에서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

승마르게 통탄하며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해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통일의 한길에 떨쳐나서자고 절절히 호소하고있다.

해불을 따라 자주의 한길로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반만년의 피줄을 이어온 우리는 하나의 민족 백두산의 줄기가 내리어 이 땅은 하나의 강토 갈라져 뿔뿔히 헤쳐져 몇해되나 겨려야 나서라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슬기로운 민족의 가슴에 애국의 피가 쏠는다. 깃발한 남녘의 강산은 원한에 몸부림친다. 통일이냐 분열이냐 력사의 물음알에 겨려야 나서라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노래 3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강령이 우리 민족이 나 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기에 통일은 반드시 된다는 굳은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조선은 하나다》, 이것은 노래제목이기에 전에 그대로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역세게 뿌리내린 통일신념이고 의지라고 할수 있다.

노래의 구절마다에는 삼천리금수강산의 기쁜진 옥토를 가르치며 분열의 가시철조망이 아르게 드리우던 비극의 그날로부터 통일을 목놓아부르던 온 겨레의 절절한 웨침이 력력히 승배여있다.

노래 2절에서는 외세가 강요한 분열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리워 버린 민족의 비극의 거개가 외세의 지배로부터 참을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당하고있는것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노래 1절에도 있듯이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한민족을 이고 살아왔으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다. 백두산의 줄기가 내리어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진 이 강토가 외세에 의하여 들로 갈라진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단결하자 조선민족아 통일의 문을 열자 혁명의 태양을 따르는 민족의 마음은 하나 수령님 밝혀주신 5대강령

노래는 강한 호소성과 전투성으로 하여 겨레의 가슴마다에 확고한 통일신념과 의지를 안겨주고있다. 노래가 세상에 나온 때로부터 어느덧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일본땅에서 해방을 맞이한 한덕수선생은 동료들과 함께 소생의 회의를 안고 해방민세를 목터지게 웨치였다.

그는 한시바빠 고향으로 가고싶었다. 하지만 그는 동료들의 귀국보장과 생존권을 위해 귀국을 미루었다.

당시 일본당국은 미군정의 지시하에 조선으로 가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귀국을 포기하게 하였다. 게다가 조국으로 돌아가는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을 태운 《우끼시마마루》가 마이즈루만에 이르러 폭침당했다는 비통한 소식까지 날아들었다.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한 대결광들의 말로

남조선에서 출간한 도서 《민족분단과 통일문제》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리승만시기 엄격한 의미에서 통일정책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통일론의 자체가 제기되고 무려에 의한 북진통일만을 떠들었음뿐이기때문이다.》



리승만 《정권》을 거꾸러뜨린 4.19 인민봉기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

통일을 불러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로 (2)

당시 한덕수선생은 38살의 로총각이었다. 그때까지 가정용 이를 생계를 하지 못하고있던 아들을 보기가 하도 딱하여 그의 아버지가 고향에서 20살 건너 처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 갔다. 그리고는 아들을 만나자마자 무작정 선을 보이고는 다음날로 결혼식을 올려 주었다고 한다.

재일조선인운동을 위해 늘 집을 떠나 일하는 남편을 위해 가정의 모든 세와는 그의 안해가 도맡아 결머지 않았으며 안되었다. 그 나날에 애지중지하던 만아들을 잃는 가슴아픈 비극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의 안해는 모든것을 꾀없이 이겨내며 재일조선인운동을 위해 뛰어나는 남편의 뒤바라지를 하였다.

한덕수선생의 안해 립수현은 후날 재일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약하였으며 오늘날 평양의 신시리에국립사원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격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디에서 살건 모두다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민족의

한덕수선생은 38살의 로총각이었다. 그때까지 가정용 이를 생계를 하지 못하고있던 아들을 보기가 하도 딱하여 그의 아버지가 고향에서 20살 건너 처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 갔다. 그리고는 아들을 만나자마자 무작정 선을 보이고는 다음날로 결혼식을 올려 주었다고 한다.

재일조선인운동을 위해 늘 집을 떠나 일하는 남편을 위해 가정의 모든 세와는 그의 안해가 도맡아 결머지 않았으며 안되었다. 그 나날에 애지중지하던 만아들을 잃는 가슴아픈 비극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의 안해는 모든것을 꾀없이 이겨내며 재일조선인운동을 위해 뛰어나는 남편의 뒤바라지를 하였다.

한덕수선생은 38살의 로총각이었다. 그때까지 가정용 이를 생계를 하지 못하고있던 아들을 보기가 하도 딱하여 그의 아버지가 고향에서 20살 건너 처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 갔다. 그리고는 아들을 만나자마자 무작정 선을 보이고는 다음날로 결혼식을 올려 주었다고 한다.

한덕수선생은 38살의 로총각이었다. 그때까지 가정용 이를 생계를 하지 못하고있던 아들을 보기가 하도 딱하여 그의 아버지가 고향에서 20살 건너 처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 갔다. 그리고는 아들을 만나자마자 무작정 선을 보이고는 다음날로 결혼식을 올려 주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국 도량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강 의 력사이기도 하다. 이 점에 대한 대결에서 반통일매에 매달려온 남조선의 력대 보수 《정권》들의 책동과 그 비참한 구한 나날은 통일애국세력과 반 심판을 받고 비참한 파멸을 면

하와이로 쫓겨가 무주고혼이 된 리승만

사실상 리승만미국도당은 우리 조국을 들로 갈라놓은 우리 외세에 적극 추종하여 범죄적인 5.10단통합을 강행하는 친수에 용납 못할 매국배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리고 저들의 파쑈적이며 반통일적인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보안법》까지 조작하였다.

《보안법》은 동족인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선 사람들을 범죄시키고 가차없이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여온 반통일파쑈악법이다. 리승만미국도당은 《북진통일》을 꾀하면서 공화국복 반부를 무력으로 라고았기 위한 북진전쟁준비에 발악적으로 매달렸다.

리승만도당은 미국의 사측하에 1950년 6월 25일 끝날내 북침전쟁의 불을 질렀다. 하지만 친략자, 도망자들에게 차려진것은 수치스러운 참패와 파멸뿐이었다. 조선정전협정의 체결로 전쟁의 포성은 멎었으나 리승만매국적파당은 《조선에서의 정정은 단지 사적주지에 관한 협약뿐이다.》, 《싸움은 이제부터이다.》라고 떠벌이면서 어리석은 《북진통일》의 간판에 새로운 친략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리승만도당은 미국의 사측하에 1950년 6월 25일 끝날내 북침전쟁의 불을 질렀다. 하지만 친략자, 도망자들에게 차려진것은 수치스러운 참패와 파멸뿐이었다. 조선정전협정의 체결로 전쟁의 포성은 멎었으나 리승만매국적파당은 《조선에서의 정정은 단지 사적주지에 관한 협약뿐이다.》, 《싸움은 이제부터이다.》라고 떠벌이면서 어리석은 《북진통일》의 간판에 새로운 친략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1948년 12월 1일에 조작한 리승만도당은 미국의 사측하에 1950년 6월 25일 끝날내 북침전쟁의 불을 질렀다. 하지만 친략자, 도망자들에게 차려진것은 수치스러운 참패와 파멸뿐이었다. 조선정전협정의 체결로 전쟁의 포성은 멎었으나 리승만매국적파당은 《조선에서의 정정은 단지 사적주지에 관한 협약뿐이다.》, 《싸움은 이제부터이다.》라고 떠벌이면서 어리석은 《북진통일》의 간판에 새로운 친략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리승만도당은 미국의 사측하에 1950년 6월 25일 끝날내 북침전쟁의 불을 질렀다. 하지만 친략자, 도망자들에게 차려진것은 수치스러운 참패와 파멸뿐이었다. 조선정전협정의 체결로 전쟁의 포성은 멎었으나 리승만매국적파당은 《조선에서의 정정은 단지 사적주지에 관한 협약뿐이다.》, 《싸움은 이제부터이다.》라고 떠벌이면서 어리석은 《북진통일》의 간판에 새로운 친략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리승만도당은 미국의 사측하에 1950년 6월 25일 끝날내 북침전쟁의 불을 질렀다. 하지만 친략자, 도망자들에게 차려진것은 수치스러운 참패와 파멸뿐이었다. 조선정전협정의 체결로 전쟁의 포성은 멎었으나 리승만매국적파당은 《조선에서의 정정은 단지 사적주지에 관한 협약뿐이다.》, 《싸움은 이제부터이다.》라고 떠벌이면서 어리석은 《북진통일》의 간판에 새로운 친략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리승만도당은 미국의 사측하에 1950년 6월 25일 끝날내 북침전쟁의 불을 질렀다. 하지만 친략자, 도망자들에게 차려진것은 수치스러운 참패와 파멸뿐이었다. 조선정전협정의 체결로 전쟁의 포성은 멎었으나 리승만매국적파당은 《조선에서의 정정은 단지 사적주지에 관한 협약뿐이다.》, 《싸움은 이제부터이다.》라고 떠벌이면서 어리석은 《북진통일》의 간판에 새로운 친략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세금이란 말조차 모르는 나라



국가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소득의 일부를 무상으로 헌납시키는 소득의 재분배형태인 세금제도는 국가의 발전과 함께 생겨나 수천년을 내려왔다.

이러한 세금제도를 완전히 철폐한 나라는 이 행성에 오직 공화국뿐이다.

피어린 항일대전으로 나라를 찾아 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제의 착취적인 식민지조세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를 확립 해주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확립해 주신 새로운 인민적인 세금제도는 일제에 의해 혹심하게 파괴된 경제를 하루빨리 복구발전시켜 자립적경제의 토대를 닦아도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촉진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공화국에서는 국가의 세금수입을 나라의 경제문화 건설을 위한 보충적자금원으로 효과있게 쓰는 한편 경제문화건설을 위한 자립적경제제도대가 닦아지는데 따라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어 주었다.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노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인민적시책이 베풀어졌고 환혼의 자금이 이처럼 귀했던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도 노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를 30% 낮추고 농민들의 현물세도 대폭 낮추어주는 인민사당의 조치가 취해졌다.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을 위한 시책을 베푸신 어버이수령님께서 1960년대중엽부터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역사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다.

그후 공화국에서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공고발전되고 자립적경제의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면서 달라진 사회의 유물인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성숙된 문제로 제기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그 날의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때 대하여 토의결정하도록 하시였으며 그에 뒤이어 3월 최고인민회의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으로 주체63(1974)년 4월 1일부터 공화국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도록 하시였다.

법령이 발표되자 세계는 법석 풀었다.

《세금을 완전히 없앨때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소식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참으로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영국학자 토마스 스킵트)

《조선에서 세금을 완전히 철폐한 사실은 아주 부러운 일이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주는 아주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미국기자 존 헤이스)

《세금이 없는 나라》, 이것은 인류의 리상이며 희망이다. 조선은 이 리상, 이 희망을 완전히 현실화하였으니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일본 전국공산당체련회 회장 우지다 마사노)

사회주의조선에서의 세금제도 폐지는 20세기 인류사적사변의 하나로 행성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때로부터 수십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이 나

말전 합경북도 명간군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던 우리는 이곳에서 남다른 사연을 알고자 하는 한 녀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유숙경, 82살 고령의 나이였지만 그 누구보다 가슴속에 뜨거운 소망을 간직하고 사는 녀인이었다.

《동일신문》 기자라는 우리의 소개를 받은 유숙경녀인은 반가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동일을 위해 분투하는 기자선생님들을 만나니 정말 기쁘다.》

알고보니 그는 지금으로부터 59년전인 1963년에 자기 나 서자란 남조선을 떠나 공화국의 품에 안긴 녀인이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남에서 23년, 북에서 근 60년을 살아온 한 녀인의 생생한 인생 체험을 접할 수 있었다.

《세월은 류수갈다더니 벌써 60년이 가까와오고있습니 까. 하지만 제가 공화국의 품에 안기던 1963년의 그 날들이 어제일인듯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1963년 당시 유숙경녀인은 경기도 수원시 수원초교 학생이었다고 한다.

꿈도 많고 희망도 컸던 그 시절, 유숙경녀인은 누구에게도 말할 못할 고민으로 온 밤 모래기다.

3년전 피어린 항쟁에 나섰던 열혈의 청년들의 투쟁모습이 그의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1960년 4월인민봉기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주의조세통치에서 온 레몬안 썩고썩어온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그때 유숙경녀인도 동료들과 함께 《백은 정치 물러가라!》, 《리승만정권 타도하라!》의 구호를 목청껏 웨치며 독재통치에 항거해나섰다. 허나 4.19봉기도 남조선에는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다. 사회는 또다시 파쇼와 암흑의 천지로 화하고 민생은 더욱 도란에 빠지

게 되었다.

남조선에서는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민주주의가 꽃피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릴적 대학교원이었던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 공화국에는 착취도 억압도 없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살고있다는 꿈같은 이야기가 귀전에 자꾸만 맴돌았다.

(가자, 북으로 가자! 이 곳은 근로인민이 주인이 된 참다운 인간세상이다. 내가

이 모든것은 공화국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안아온 꿈같은 현실이었다.

《지금도 두해전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태풍, 폭우, 산사태... 도처에 자연재해가 휩쓸었던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TV로 대청리를 찾으면서 겨우겨우 탈출한 것을 회고하며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큰물이 모든것을 삼키며 휩쓸어간 대청리의 험악한 감탕바다를 야전차의 운전대를 잡고 헤쳐오신 것이, 흉탄범벅이 된 차를 열고 나서신 그이를 예우하 고 무서운 재난과 불행속에

고 어려울 때 더 억센 손길로 인민을 이끌어주는 위대한 사랑과 정이었다.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 사람대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수록 유숙경녀인의 마음속에는 이 좋은 제도에 서 부모형제가 다같이 함께 살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욱 욱 불타올랐다.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장에서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은 저의 이 열망을 더욱 강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이께서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서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겨레가 안겨줄 행복의 보금자리

— 함경북도 명간군 을 34 인민반 유숙경녀인 —

같은 그 길뿐이다.)

이렇게 되어 그는 1963년 8월 남조선사회와 결별하고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공화국은 인간생존권의 동토대에서 열대도 열고 정에 주었던 나를 따듯이 품어 주었습니다. 공화국에서 나는 그토록 갈망하였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 다.》

유숙경녀인은 희망대로 상업일군으로 사업하였고 두 아이들은 돈 환분 내지 않고 소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졸업하였다. 특히 어려서부터 수재로 소문난 둘째 아이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교육자 로 성장하였다.

하루하루가 보람있고 희망에 넘친 날들이었다.

공화국에는 집이 없어 한 지에서 자는 로숙자도 없었고 직업이 없어 거리에서 떠도는 실업자도 없었으며 돈이 없는 학교에 못가는 아이들도 없었다.

서로가 위해주고 도와주며 화목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날들은 남조선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

고 어려울 때 더 억센 손길로 인민을 이끌어주는 위대한 사랑과 정이었다.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 사람대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수록 유숙경녀인의 마음속에는 이 좋은 제도에 서 부모형제가 다같이 함께 살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욱 욱 불타올랐다.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장에서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은 저의 이 열망을 더욱 강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이께서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서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고백, 마음속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뿐이라고 하실 때,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렇게 모두가, 우리 인민 모두가 무뎠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하실 때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견줄 수 없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쟁그리 바치시고도 인민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시는 이런 명도자, 이런 고마운분이 세상에 어디 계시겠습니까? 남녘에 계시는 저의 어머니, 형제들, 동창생들 아니 우리 온 겨레가 이렇듯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주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유숙경녀인이 살고있는 함경북도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부르심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달려온 수도당원사단이 피해지역들에 번듯한 새집, 새 마을들을 일떠세워주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정령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은 북녘에서 살고 있는 유숙경녀인의 가정에도 속속들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사랑과 정은 인민이 아플 때 더 마스히 풀어주었

고 어려울 때 더 억센 손길로 인민을 이끌어주는 위대한 사랑과 정이었다.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 사람대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수록 유숙경녀인의 마음속에는 이 좋은 제도에 서 부모형제가 다같이 함께 살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욱 욱 불타올랐다.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장에서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은 저의 이 열망을 더욱 강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이께서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서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본사기자 김준경

불가능했던 세금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남조선 잡지 《주간경향》(2022년 1월 3일 호)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만 폐지해도 미친 집값 잡힌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1년 12월 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무주택근로자가 서울에서 30평형아파트를 구입하는데 20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30평형아파트값이 2017년 6억 2000만원에서 2021년 11월에는 12억 9000만원으로 두배 폭등했다. 38년간 급여를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의 30평형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급여를 한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 것도 불가능할터라 설사 그 불가능을 실천한다고 해도 38년간 급여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서울가구의 52%에 달하는 무주택가구는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 한 내 집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대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겼다.》

계속하여 당국이 2017년 12월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을 발표해 세제혜택을 확대했고 이 방안이 발표된 직후인 2018년에는 임대주택등록이 활성화되어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폭등했다고 하



역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땅의 주인으로 되려는 농민들의 오랜 소원을 풀어준 토지개혁

해방직후 북조선의 인구중에서 농민은 거의 80%를 차지하였다.

나라가 해방됨으로써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에 대한 일제의 가혹한 수탈의 울가미는 벗겨졌지만 오랜 세월 내리온 봉건적억압과 착취의 숨막히는 결박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북조선의 총 농가호수가운데서 4%밖에 안되는 지주가 총경지면적의 58.2%를 차지하고있었으며 농가호수의 56.7%에 달하는 빈농민들은 경지면

적의 겨우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봉건적토지소유제도가 오래동안 존속되어온 조선에서는 땅에 대한 농민들의 소유관념이 매우 높았다. 농민들은 땅을 못가진 탓으로 지주의 가혹한 착취를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땅을 가지고 농사를 마음껏 지어보았으면 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

농민들의 이런 절절한 녀망을 헤아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토

지개혁을 민주개혁의 선차적 과업으로 내세우셨다.

그이께서는 농촌들에게 나가서 농민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후 그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것을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진행하며 몰수한 땅을 국가의 소유로 하지 않고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그이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 5일 역사적인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시였다.

이것은 수천년 땅을 다루는 농민들을 억압착취해온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완전히 없애버린 역사적인 사변이었고 공화국에서 농촌문제해결의 빛나는 새 역사를 개척한 거대한 사변이었다.

그이께서는 이어 《토지개혁실시에 대한 립시조치법》과 《토지개혁법령에 대한 세칙》, 《북조선농민은행설립에 관한 법령》들을 제정공포

하도록 하시였다.

토지개혁은 불과 20일 남짓한 사이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결과 일제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 지주들의 토지 100만여정보가 몰수되어 72만여호의 고용농민들과 토지없는 농민, 토지없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되었다.

토지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이 땅의 농민들은 봉건적착취관계와 연속에서 해방되고 역사상 처음으로 땅의 주인으로 되었다.

나라에서 준 땅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표말을 받고 그 땅을 아무런 지대도 없이 모르고 감격에 울고있던 농민들의 모습은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져 있다.

토지개혁의 기쁨 넘쳐나는 대지우에 울려 퍼진 《밭갈이 노래》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농민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드높은 애국적열정을 생동한 화폭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한다.

독자문답

조선에서는 부상을 당하고 제대된 군인들을 어떻게 우대해주는가

공화국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히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고 제대된 사람들과 인민군대에 복무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제대된 사람들을 《영예군인》이라고 부른다.

공화국에서 영예군인들은 국가의 커다란 관심속에 우대를 받으며 생활하고있다.

나라에서는 달마다 영예군인우대금을 지불하는것을 비롯하여 해마다 그들에게 보약값을 주고있으며 그 보

호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돌려주고있다.

영예군인들에게 교정기구와 세바퀴차를 국가부담으로 공급하고있으며 려할 때에 는 차표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편의봉사기관들에서는 영예군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봉사해주고 철차다 빠스들에도 영예군인들을 위한 좌석이 따로 있다.

영예군인들이 영예군인학원

을 비롯한 대학, 전문학교 등에서 공부하는 기간에는 교복과 학용품 비롯한 학습조건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

양식사를 공급받으며 국가의 보살핌속에서 생활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온 나라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이 된 공화국에서 영예군인들의 일생의 길동무가 되어주고 친형제, 친부모가 되어주는 교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계속 발휘되고있다. 이러한 속에 영예군인들 누구나 아무런 권속걱정이 없고 건강하고 밝은 삶을 누려가고있다.

본사기자 림광훈

전쟁 불구름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망동

남조선호전세력이 오는 4월 미국과 야합하여 공화국을 목표로 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대규모로 벌여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합동군사연습시기를 명확히 밝히고 야외실용기동훈련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떠벌이고 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의 이러한 망동은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도발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대한 전면도전이다.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이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하기에 남조선위정자

들은 내외여론의 지탄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감히 내놓고 뼈저리게 벌이지 못하고 《방어적》, 《년례적》이라는 미명하에 《실동훈련》이 아닌 《컴퓨터모의훈련》 등으로 간판을 바꾸어가며 벌여왔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그러한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외세의 합동군사연습을 언론에 내놓고 공개하며 로골적으로 벌여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위선적으로나마 내뿜었던 《대화》와 《평화》의 간판마저 집어던지고 대결과 전쟁의 길에 공공연히 나서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족에 대한 적대와 전쟁을 생리

로 하는 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대결과 북침전쟁책동으로 하여 조신반도정세는 전쟁위험이 최극단으로 치닫는 엄중한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역사와 오늘의 현실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실증해준다.

남조선호전정권이 외세와 야합하여 명백히 자기들의 선택을 세상에 알린 이상 그에 따른 모든 후파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 필

더욱더 우심해지는 보수당의 내부갈등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이 계파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하여 또다시 고결적인 패싸움의 수렁창에 갇히기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전부터 퍼져지는 골반이에 양심의 뿌리가 깊어진 당대표와 그 반대파의 세력권확대를 위한 싸움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

리준석의 선거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며 그의 반성을 요구해나서고있기때문이다.

야기되고있는 《당대표책임론》

《토사구팽》이란 성구가 있다. 이것은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도 필요없게 되어 주인에게 살아먹히게 된다는 뜻으로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없을 때에는 가져다 버려지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국민의힘》안에서 《당대표책임론》이 대두한것은 《토

사구팽》이 아니겠는지. ... 지금까지 남조선정권에서 선거에서 패하면 당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일등공신》으로 떠받들려 왔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안에서는 당대표 리준석에게 잘못을 따지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인물들이 현일 나서 당이 내세웠던 득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것은

적소명은 여전히 필요하고 더 보강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절대 안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번당, 2번당 운운하며 성갈라치기의 후속공이 불고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마 첫 전장이 될것이다. 이 사안을 자칫 잘못 다루었다가는 곧바로 고립될것》이라고 하면서 《리준석정치는 이제 퇴출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공약의 리해여부를 두고 갈라지고있다.》, 《당내 일각에서 여성가족부 폐지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리준석당대표 등이 공약사수를 강요하며 분열상이 나타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리 행 이 나 페 지 나

《국민의힘》의 내부갈등은 여성가족부 폐지공약의 리해문제를 두고서도 나타나고 있다.

당대표 리준석을 비롯하여 공약리해를 주장하는측은 《국민여론과 시대정신을 따르겠》이라고 정당화하며

《공약은 지켜질것》이라고 강경립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반대파는 《20대남성의 문제가 20대여성들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듯이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해서 해결할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여성가족부의 역사

김정선



리념과 지역을 따라, 계급과 계층사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 세대사이에서 극심한 갈등과 대립이 조성되어있는 남조선에서 최근 남녀갈등도 최악에 이르렀다고 한다.

남조선의 어느 전문업체가 3월에 들어와 남녀 1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1년전에 비해 남녀갈등은 가장 눈에 띄우게 높아진 사회적갈등 유형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남조선여성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면 왜 남녀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2021년 세계경제연단의 보고서는 남조선의 성평등지수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156개 나라들중 102위라고 하면서 남조선여성들의 인권상황은 말할것도 없고 평균

임금도 남성의 6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나라들중 가장 심각하고 더우기 성범죄처벌이 미약하다고 전하였다.

형편이 이리함에도 남조선의 젊은 남성들속에서는 자기의 존엄과 지위를 찾기 위한 남성들의 《페미니즘》(여성인권옹호주의)운동을 《역

《남성들의 용도는 밤에만 쓰는것》, 《여성가족부는 수명을 다한것》이라고 떠벌이는 《국민의힘》과 같은 사이비정객들이 남조선정계에서 활개치고있는것도 문제이다.

사회정치적갈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가라는 자들이 오히려 남녀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부추기고있으니 사회적으로, 여성중요가 만연되고 성폭력, 가정폭력, 사회폭력의 대다수 희생자들이 다름아닌 여성들이 되고 있는것이다.

《국민통합》, 빛좋은 개살구

얼마전 그 무슨 《국민통합》을 떠들어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도 등금이 있다.》, 《한국사람들은 분명 시민이 아니고 어리석은 민초들이다.》, 《하는것이 민초의것이라면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로.》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한다.

인민들을 설치류 취급하고 《먹을것만 주면 만족해하는 개, 돼지》로 여기던자들의 변태적인 관습이 또 발작한것이라 하였다.

예로부터 사람우에 사람이 없고 사람아래 사람이 없다는 말도 전해져오듯이

사람들사이에는 천대만상의 차이가 있을수 있어도 존엄에서는 높고낮음이 있을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시정잡배들은 남조선인민들을 《무지렁이로 끝자도 잘 모르고 혼돈에 약하고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복종 잘하는 민초》, 《속으로만 불만을 갖고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갈라놓다 못해 《개, 돼지》라고 또다시 모욕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이 운운하는 《공정》이고 《정의》인 모양이다.

하기는 저들끼리도 《돌고래》, 《멸치》, 《고등

한일혁

극심해지고있는 남녀갈등

남조선여성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면 왜 남녀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2021년 세계경제연단의 보고서는 남조선의 성평등지수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156개 나라들중 102위라고 하면서 남조선여성들의 인권상황은 말할것도 없고 평균

남녀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 《오마이뉴스》는 《국민의힘》이 여성에 대한 그릇된 반감을 정치수단화함으로써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있다. 앞으로 여성들의 삶이 더 크게 위협받으리라는 우려가 커졌다고 평하였으며 《신동아》는

《정치인들이 쉬운 길을 가려 한다. 진짜문제를 파고들어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성별갈등을 부추긴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려는 《국민의힘》에 대한 각계층의 울분의 목소리에서도 남녀갈등의 심각한 원인의 하나를 찾을수 있다.



좁 세 기 적 인 악 법 을 휘 둘 러

《조선태형령》을 조작실시한 일제의 최악

지난 세기 조선을 총칼로 강점한 일제는 우리 민족의 존엄과 권리, 자유를 깎고 빼앗고 사소한 반일적요소도 짓밟아버리기 위해 수많은 파쇼악법들을 조작하고 그것을 휘둘러 우리 민족을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탄압학살하였다.

일제가 조작한 파쇼악법들 가운데는 우리 민족에게 중세기적인 태형을 적용할것을 규정한 악법도 있었다.

《조선태형령》은 1912년 3월에 《조선총독제령》 제41호로 조작되었다.

봉건사회에서 많이 적용하던 태형은 자본주의시기에 와서 형벌종류에서 삭제되었으나 일제는 20세기에 들어선 이후에도 조선에서 그것을 다시 부활시켜 가혹하게 적용하였다.

일제는 《조선태형령》을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넓혀놓았다.

이 법은 《3개월이상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할 사람과

1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람》중에서 조선내에 일정한 주소지 가지지 않았거나 재산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정상에 따라 태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일제의 탄압정책으로 인하여 모든것을 빼앗기고 류랑하지 않을수 없게 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경장법칙규칙》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태형을 적용하게 하였으며 태형을 가할수 있는 권한을 헌병과 경찰에게까지 주었다.

이 악법은 검사와 주검관인 경찰서장에게 범인을 감옥 또는 주검서에 유치할수 있는 권한을 주고 태형을 비밀리에 적용할때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일제는 1912년 12월에 《훈령》 제40호로 조작한 《태형심독》에서 《태형은 수형자를 형률우에 얹어놓고 그 사람의 두팔을 좌우로 퍼서 형률에 묶은 다음 바지를 벗기고 궁둥이를 드러내

여 매질을 강하게 한다.》, 《매를 칠 때 울부짖을 우려가 있을 때는 물을 추진형으로 입을 틀어막는다.》라고 태형을 집행하는 방법까지 규정해놓았다.

이처럼 《조선태형령》은 조선사람들에 대한 가혹한 민족적억압과 차별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중세기적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극악한 파쇼악법이었다.

일제는 《조선태형령》뿐 아니라 《보안법》, 《사상범보호관찰령》을 비롯한 수많은 파쇼악법들을 조작하고 조선민족의 사상과 량심, 신념 등 모든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범죄시키고 탄압하였다.

일제가 조작실시한 이 악법들에 의해 조선의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사람들이 악형에 시달리다가 교수대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조선민족의 피로 얼룩진 범죄의 역사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파렴치하게도 저들의 과거범죄

를 정당화, 합리화하는 한편 제침야망에 들떠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다.

과거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인 방법으로 탄압학살한 일제의 최악은 절대로 폄화될수 없는 만고죄악이다.

만약 일본이 조선민족을 비롯한 인류에게 저지른 과거죄악을 깨끗이 청산하지 않는한 섬나라의 미제는 영원히 암담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남 조선 에서 가계부채가 최악으로 증가

남조선언론들이 《통계개발원》에서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를 발간한 소식을 보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개의 지표들 가운데서 1인당 국민총소득과 가계부채비율 등의 지표가 악화된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본사기자 김광혁

소세를 보인 1인당 국민총소득은 지난 2020년에 들어와서도 전체에 비해 약 0.4%로 떨어졌으며 이렇게 2년 연속 줄어든것은 2000년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가계부채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200.7%로서 1년전과 비교하면 12.5%

본사기자

《정치난쟁이의 거인흉내》

리사국무대에까지 올라가보려는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준다.

과연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을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고역장과 전락전쟁터에 내몰았고 20만명에 달하는 조선여성들을 침략군의 성노리개로 삼은것을 비롯하여 일본이 저지른 특대형인민폭적죄악은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다.

천백만 사죄하고 배상해도 용서받기 힘든 대죄악을 저지르고도 낮잡아놓지 않고 도리어 강제연행과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반인륜적죄악에 대해 《자발적》이니, 《매

본사기자 김정혁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통악산고인돌무덤떼

고인돌무덤은 고조선을 비롯한 우리 나라 고대국가의 대표적인 무덤이다. 지상이나 반지하에 웅크린 돌과 조각돌로 돌판을 만들고 그 위에 5~6t 또는 수십 t 되는 큰 뚜껑돌을 올려놓은 무덤인데 뚜껑돌은 지상에 드러나있다.

이곳의 무덤떼에 대해 해설해 주었다.

《고인돌무덤은 고조선이 전시기부터 발생하여 그 이후 B.C. 3세기말까지 존재 하였습니 다. 고인돌무덤에는 침총형, 오리형, 목방형 등이 있는데 통악산고인돌무덤에는 오리형과 목방형고인돌무덤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한 형식과 몇개의 돌을 고여 만든 무덤형식이 새로운것도 있어 학계의 주목을 끌고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만경대동에서 37기, 삼흥동에서 33기, 원로리에서 17기, 통봉리에서 29기가 발굴되었다고 한다. 삼흥동1호무덤의 뚜껑돌은 길이가 246cm, 너비 175cm, 두께 40cm로서 재질은 력암이었다. 무덤칸의 길이는 148cm, 너비 60cm, 높이 67cm이며 바닥돌을 하였다. 그리고 무덤주변에 막돌을 쌓아 보강하게 하였다.

통악산일대의 고인돌무덤떼는 우리 선조들의 고인돌무덤 쌓기술이 당시로서는 높은 수준에 있었음을 잘 알 수 있게 하였다.

장숙영



통악산고인돌무덤떼 원경과 그 일부

정보기술발전면모를 보여준 프로그램작성도전경연

공화국에서 국가인터넷망을 통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 프로그램작성도전경연 《개척자-2022》가 참가자들의 양양된 열의속에 진행되고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김책공업종합대학 프로그램작성도전경연 《개척자-2021》(2차)만 놓고보아도 여러 차례의 예선경연과 준결승경연, 결승경연으로 나뉘어 100여개 단위의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제출한 프로그램을 봉사에서 자동심사하여 그 결과를 즉시 되돌려주는 프로그램작성검정시스템을 주축에서 자체로 개발하여 심사결과와 신속성과 정확성을 담보한것이다.

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국제공로자들속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첨단기술개발에 너도나도 뛰어들고있는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본사기자 림광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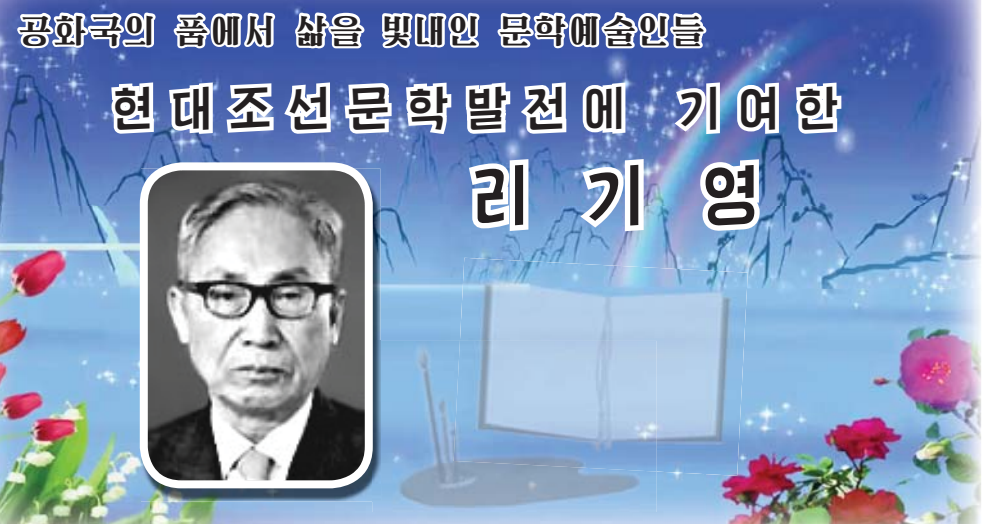
한편 프로그램작성도전경연을 자체의 정보기술인재들을 키워내는 중요한 계기로 여기고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과학교육단위들은 물론 기관, 기업소, 예하기관도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정중하게 머리와 옷몸을 숙이는 자세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과 친절성을 표시하는 행동강령을 나타내주는 인사법, 즉 인사법 동행하는 예의범절을 말한다. 간단히 조선절이라고도 한다.

조선의 인사체법 (조선절)

조선의 인사체법은 사람이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과 친절성을 표시하는 행동강령을 나타내주는 인사법, 즉 인사법 동행하는 예의범절을 말한다. 간단히 조선절이라고도 한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문학예술인들 현대조선문학발전에 기여한 리기영

현대조선문학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소설작가 리기영은 어려서부터 문학을 몹시 좋아하였으며 많은 소설을 읽으면서 문인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다.

그는 전해도 굶기 전에 란광과 공사관들에서 험한 일을 하면서 나라의 고성과 실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눈물겨운 고학생활도 한 그는 조국으로 돌아와서는 교단에 서서 문학을 가르쳤다.

이기영은 그후 잡지 《조선지평》의 기자로 있었으며 카드의 출판부와 문학동맹을 맡아보면서 프로레타리아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심혈을 바쳤다.

본사기자 리철민

면역강화효과가 뛰어난 생물활성인삼수액

지금 세계적으로 인삼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화되면서 인삼사포닌들의 약리활성을 더욱 높일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것이 추세로 되고있다.

사람의 위장관내에는 인삼사포닌소화효수에 리용되는 장내정상세균이 매우 적게 들어있다. 때문에 인삼을 그냥 먹는 경우 위장관내에서 인삼사포닌의 소화효율은 5%정도 밖에 안된다고 한다.

비롯한 여러 보건단위에서 수년간에 걸쳐 임상검토를 진행한 결과 이 수액은 인삼사포닌을 주성분으로 하는 다른 약물에 비해 배 배세포중식억제작용과 면역증강작용을 지니고 있어 면역력증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생물활성인삼수액은 화학치

에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농약물 사랑하며 즐기었다. 우리 민족의 농약무치법 민족적색채가 짙고 예술적기교가 높으며 그 형상이 독특한 민족예술형식은 많지 않다.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농악무

생한 장단과 흥겨운 선율을 연주하고 다채로운 춤구도들이 그리거나 열두발상모와 같이 특색있는 형상수단들이 동반되는 고유한 민족예술형식을 갖추고있다.

농악무는 총련의 규모가 가장 크고 예술적형상이 다양하며 흥취도 강하다. 농악무는 어느 지방에서나 다 진행되었지만 춤구성과 춤가락은 지방적특징이 뚜렷하였다.



본사기자

백의종군 원 말이나 (3)

그림 채대성

그중에서도 가장 가슴아파하는 사람은 리순신의 벗인 군관 선지이었다.

리순신은 북병사의 군령장을 받고 즉시 리일이 기다리는 북병영으로 갔다. 영문에 이르니 군법에 따라 처형을 당하게 되는것을 잘 아는 군사들이 모두 동경어린 눈길로 리순신을 지켜보았다.

《조선만호 리순신은 듣거라.》 리일은 시꺼먼 채수염을 후들후들 떨며 대청아래 무릎을 꿇고앉은 리순신을 향해 호령을 했다.

《너는 변방보루를 지키는 장수로서 보잘것없는 녀친오랑에게 돌리며 두사람의 군사를 죽이고 자신이 부상을 당했으며 60여명의 무고한 사람을 죄에게 잡히게 하였으니 군법이 엄정할것을 알겠거든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여보게, 여해(리순신의 자)! 이제 어찌된 일인가?》 영문앞에서 기다리고있던 군관 선지이가 마주나와 그의 두손을 잡고 울먹이였다. 《병사의 군령장을 받고 왔네.》 리순신은 무겁게 대답했다. 《병사가 지금 천둥같이 노했다. 자네를 패전지장으로 몰아 이제 군법을 시행한다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는가.》 선지이는 미리 준비해가지고 나온 술을 잔대접에 철철 넘겨 부어서 두손으로 받쳐 올렸다. 예로부터 형장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 술을 대접하는 풍속이 있었나. 선지이는 리순신과 마지막

《죽고사는것은 다 정해진명이 있는 법인데 술을 마시어 무엇하겠나. 고맙네만 술을 그만 거두게.》 《그렇다구 내 어찌 자네를 그저 보내겠나. 그럼, 물이라도 마시고 들어가게.》 선지이는 손수 물 한대접을 두손으로 받쳐올렸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목이 마르지 않는데 물은 왜 마시라나.》 리순신은 이런 말을 하면서 친구의 섬의를 고맙게 여겨 불대접을 받았다. 물 한모금을 마시고 대접을 내미는 리순신의 두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여있었다. 《고맙소, 선군관!》 비장한 목소리로 이 말 한마디를 남긴 그는 증대문을 거쳐 병사가 지키고있는 대청들로 들어갔다. 병사 리일은 형들과 곤장, 기지창등을 어마어마하게 벌려놓고 대청마루에 높이 앉았었다.

《사도, 통속하시오. 소관은 패전지장이 아니옵니다. 승전의 보고는 이미 계문에 적어 올렸으니 다시 아뢰일것이 없소이다. 다만 소관은 몇 안되는 군사로 적을 물리치고 잡혀간 60여명을 찾아왔으니 패전지장이 아니라는것을 분명히 할뿐입니다. 목숨을 잃은 두사람은 용감히 싸우다 쓰러진 총성된 군사들이니 용

소이다. 지금도 그 계목초본이 여러장 소인에게 있으니 그 사실을 증명할수가 있습니다. 조정에서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소관에게만 죄를 따지지 않을것입니다. 소관은 적은 군사를 가지고 적을 격퇴하고 특등도의 훈전을 지켰으며 잡혀간 두사람을 되찾아왔습니다. 힘에



그때도 자기 체면만은 세우야 하겠기에 다음날 《리순신을 잡간 백의종군(장수들이 죄를 지었을 때 보통군인으로 복무하게 하는 처벌)하게 함이 좋을까 하오이다.》라는 내용의 상소문을 조정에 올렸습니다. 당시 리일, 신림이라 하면 호랑이같은 장수로서 알려져서 조정의 신임이 컸기때문

《죽고사는것은 다 정해진명이 있는 법인데 술을 마시어 무엇하겠나. 고맙네만 술을 그만 거두게.》 《그렇다구 내 어찌 자네를 그저 보내겠나. 그럼, 물이라도 마시고 들어가게.》 선지이는 손수 물 한대접을 두손으로 받쳐올렸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목이 마르지 않는데 물은 왜 마시라나.》 리순신은 이런 말을 하면서 친구의 섬의를 고맙게 여겨 불대접을 받았다. 물 한모금을 마시고 대접을 내미는 리순신의 두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여있었다. 《고맙소, 선군관!》 비장한 목소리로 이 말 한마디를 남긴 그는 증대문을 거쳐 병사가 지키고있는 대청들로 들어갔다. 병사 리일은 형들과 곤장, 기지창등을 어마어마하게 벌려놓고 대청마루에 높이 앉았었다.

《죽고사는것은 다 정해진명이 있는 법인데 술을 마시어 무엇하겠나. 고맙네만 술을 그만 거두게.》 《그렇다구 내 어찌 자네를 그저 보내겠나. 그럼, 물이라도 마시고 들어가게.》 선지이는 손수 물 한대접을 두손으로 받쳐올렸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목이 마르지 않는데 물은 왜 마시라나.》 리순신은 이런 말을 하면서 친구의 섬의를 고맙게 여겨 불대접을 받았다. 물 한모금을 마시고 대접을 내미는 리순신의 두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여있었다. 《고맙소, 선군관!》 비장한 목소리로 이 말 한마디를 남긴 그는 증대문을 거쳐 병사가 지키고있는 대청들로 들어갔다. 병사 리일은 형들과 곤장, 기지창등을 어마어마하게 벌려놓고 대청마루에 높이 앉았었다.